

【 주간포커스 】

북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은행 민영화 사례

유진아 부연구위원

최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주로 동부 및 북부 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. 먼저 헝가리 은행 OTP의 경우 주식시장 공모를 통해 정부 지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되었고 폴란드 은행 BH는 투자자 그룹이 정부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도 정부가 동 은행의 전환사채를 보유하였다. 체코에서는 5대 주요 은행 모두가 민영화되었는데 모두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이 매각되었다. 스웨덴의 Nordbank는 정부 지분의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었고 이후 민간은행과의 인수·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다. 이 밖에도 투자은행이 중개기관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정부 지분을 50% 인수한 노르웨이 은행 Den Norske 사례가 있다.

□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확정된 이후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- 정부는 은행을 경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은행의 소유권을 가급적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(정형권 2003¹⁾)
 - 일반적으로 정부소유 은행의 경우 민간은행에 비해 비용 및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.
-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은행의 대형화가 목적은 아니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, 금융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

□ 북부 및 동부 유럽국가에서 은행 민영화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, 민영화 방식은 크게 ① 주식시장을 통한 정부 지분 매각, ②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, ③ 위 두 방식의 병행, ④ 민간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정부 지분 감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²⁾.

1) 정형권(2003), “은행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”, 금융경제연구 제163호, 한국은행.

2) 나동민 외(2002), “출자금유기기관의 민영화전략”, KDI, 연구보고서 2002-10

○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.

□ 먼저 주식시장을 통해 정부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사례로는 헝가리의 OTP 은행(Országos Takarékpénztár és Kereskedelmi Bank)와 노르웨이의 Den Norske 은행의 경우를 들 수 있음.

○ 헝가리 정부는 1994년 이후 OTP 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(59%) 가운데 일부 (34%)를 기업공개(initial public offering)를 통해 매각하였고 이후 1997년까지 잔여 지분(25%)를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매각

○ 노르웨이 Den Norske 은행의 경우 1, 2차 기업공개를 통해 정부 지분이 72%에서 50%로 낮아졌는데 동 과정에서 신디케이트로 참여한 투자은행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모가격을 높임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

- 1차 공모에 Goldman Sachs가, 2차 공모에 SBC Warburg 등의 투자은행이 중심이 되어 신디케이트가 구성됨.

- 정부는 50%의 지분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일절 간여하지 않음.

□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은 체코의 사례가 있음.

○ 체코 정부는 5대 주요 은행³⁾의 정부보유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로 나선 Societe Generale, Erste Bank, 노무라증권, EBRD⁴⁾와 KBC Bank에 각각 매각

○ 가장 먼저 민영화한 IPB의 경우 2000년 은행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 폐쇄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체코 정부가 CSOB와의 합병을 추진

○ 한편, 폴란드의 Bank Gdanski S.A.와 Bank Gdanski는 기업공개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

- 기업공개를 통하여 민영화를 시도하였을 당시 주식시장 수요 부족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고 또한 독립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

- 이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잔여지분을 매각하면서 독립적 지배구조를 달성

□ 주식시장을 통한 매각 및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을 병행한 방식으로 폴란드의 Bank Hanlowy와 Bank Gdanski S.A 및 Bank Gdanski의 사례 등이 있음.

3) Komerční Bank(KB, 예금은행), Česká Spořitelna(CS, 저축은행), Investiční a Poštovní Bank(IPB, 투자 및 우정은행), Československá Obchodní Bank(CSOB, 무역은행), Agrobanka(농업은행)

4)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(EBRD)는 주로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국제금융기관

- Bank Handlowy의 경우 JP Morgan, Saprbanken, Zurich group이 참여한 투자자그룹에게 지분 28%를 매각하였고 잔여 정부 지분을 기업공개를 통해 매각
 - 동 과정에서 정부는 주식으로 전환 시 지분의 30%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보유
- Bank Gdanski S.A.와 Bank Gdanski는 기업공개를 통해 일부 민영화하였으나 결국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

□ 민간은행과의 합병을 통하여 정부보유지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시행한 경우는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의 종합금융회사 Nordea로 성장한 스웨덴의 Nordbank 사례가 있음.

- 스웨덴 정부는 보유지분의 일부(6%)를 동 은행에 자사주 매입 형태로 매각하였고, 이후 핀란드계 은행인 Merita와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며 지주회사(Merita-Nordbanken Holdings)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유 지분은 56.4%에서 25.5%로 하락
 - 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덴마크계 은행 Unidanmark를 합병하고 노르웨이계 은행 Kreditkassen Bank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북유럽과 발트해지역 종합금융그룹 Nordea로 재탄생
-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통하여 은행 신인도 및 주가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가능

□ 은행의 민영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민영화 방식에 따라 은행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영화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

- 스웨덴의 경우처럼 우리은행이 우량은행과 합병되어 메가뱅크가 탄생할 지 아니면 아니면 헝가리의 경우처럼 정부 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단계적 혹은 전부 매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
- 각각의 경우가 은행산업의 시장구조, 경쟁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처럼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,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. KiRi